



유연한 소통, 단단한 혁신! 행복청, '해피브릿지' 닻을 올리다

- 자발적 참여 기반의 내부 혁신 조직,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앞장
- 현장소통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위한 '혁신 아이디어 저장소' 역할 기대

행복청(청장 강주엽)은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3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해피브릿지 1기는 조직문화·일하는 방식·현장소통 등 3개의 분임을 중심으로 '갑질 용어사전 제작', '인공지능 활용 행정실무 워크숍', '세대공감 릴스 제작'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출범한 2기는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해피브릿지는 혁신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모색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등이다.

해피브릿지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간기업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청만의 차별화된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참신한 제안들은 실제 조직 운영 및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형욱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행복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청의 경쟁력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연한 소통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행사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정현주 (044-200-3070)
		담당자	사무관	임석훈 (044-200-3071)





<최형욱 행복청 차장(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정부혁신 모임 ‘해피브릿지 발대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복청 직원들이 정부혁신 모임 ‘해피브릿지 발대식’에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